

# 도서(島嶼) 문화의 문학적 재현 양상과 어민 신앙적 관점에서 본 인물의 변위 및 의미 연구

— 천승세의 중편 「낙월도」를 중심으로\*

마 혜 정\*\*

## 요약

천승세의 「낙월도」(1973)는 자연환경과 어민 신앙적 관습 때문에 섬사람들이 겪는 극한적 곤궁을 그린 작품으로 그간 인물의 행위 없음이 한계로 지적되어 무시 간적 신화의 공간, 원시적 공간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배경인 낙월도를 인간 현실의 장소로 인식하고자 이 지역의 민속학적 연구를 참고하고 어민 신앙에서 신격을 이해하는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인물의 확장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환경과 집단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이되는 유연성을 어민 신앙의 특성으로 본다면 「낙월도」의 서사 내 환경을 어떤 신화 생성의 예비적 단계로 보고 그 집단의 필요에 따른 특정 인물의 유사-신격화를 상상해볼 수 있다. 이에 흥여기의 지속과 함께 세도가들의 횡포로 고통받는 섬 여성들의 신앙적 회구의 대상으로 무저항적 신념을 가진 주인공 ‘귀덕’을 상정했다. 그리고 섬 여성들에 대한 그녀의 연민이 무당의 굿과는 달리 공동체적 윤리 의식에서 기인하며 섬 안의 질서가 갖는 모순에 대한 직시까지 포함한 것임을 밝히고 그것을 ‘귀덕’의 신성성으로 파악했다. 이어서 귀덕이 세도가의 시앗으로 들어가는 결말 부분에 대해 그것을 질서외의 뛰어남으로 보고 섬 여성들의 수난의 삶을 고스란히 되풀이 사는 것으로 읽어 귀덕의 신성성과 연계해 또 다른 신격 좌정의 조건으로 보았다. 연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0339)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 힘과 함께 수난의 삶을 고스란히 되풀이 사는 견딤의 능력은 현재의 섬 여성들도 똑같이 겪는 섬살이에 필요한 견딤의 내력(耐力)이자 그들에게 내재된 힘(內力)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를 「낙월도」의 신화적 공간이 열리고 당대의 민중을 넘어 현재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독해 방식의 최종 의미로 삼았다.

주제어: 천승세, 낙월도, 도서 문화, 재현, 어민 신앙, 용왕제, 신, 신화, 신성성, 연민, 여성신, 무저항성, 견딤

목차

1. 서론
2. 어촌의 수난 재현 양상과 어민 신앙적 관점에서 본 인물의 변위와 의미
3. 결론

## 1. 서론

천승세의 「낙월도」(1973)는 섬이 가진 자연 조건과 그에 얽힌 ‘어민 신앙적<sup>1)</sup> 관습 때문에 섬사람들이 겪는 극한적 곤궁을 그린 어촌·어민 문학으로, 굶주림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최서해 이후 가장 뼈어나게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sup>2)</sup> 또한 섬과 바다, 희생제의, 공동체적 삶과 죽음, 민속적 생활 관습 등을 밀도 있게 엮고 있어 주제 면이나 또 지역 방

1) 무속신앙이라는 말은 전문 사제자(무당)가 주관하는 의례인 굿과 관련된 의미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굿 장면이나 인물이 전경화되지 않는 「낙월도」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바다와 직결되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마을 단위로 연행되는 기복적 신앙의 의미를 염두에 두어 ‘어민 신앙’이라는 말을 쓴다. 윤애경(「「신궁」에 나타난 토속적 생명력 연구」, 『어문논집』51, 민족어문학회, 2005, 355면)은 「신궁」을 논의하며 ‘토속신앙’이라는 용어를 썼다. 민속학에서는 주로 ‘민속신앙’, 또는 ‘민간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2) 이봉범, 「농민문제에 대한 문학적 주체성의 회복」,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66면.

언의 유려한 활용 면에서 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sup>3)</sup> 그러나 그간 이 작품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고 대개가 여타 작품과 함께 언급되는 데서 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염무웅과 이보영, 양윤의, 김개영이 공간 배경과 신앙적 관습이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는 동일 작가의 단편 「신궁」(1977)을 같이 다루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낙월도」는 「신궁」의 인물 ‘왕년이’가 등장하기까지의 예비적인 작업으로 다루어진다. 「낙월도」에 창궐한 자연 재앙과 허기 속에 반복되는 제의로 고통받기만 하는 섬사람들의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정서와 ‘행위 없음’이 곧 문학적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다. 이보영에 따르면 ‘낙월도는 선주와 상전첩의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진행되는 중세기적인 암흑사회다.’<sup>4)</sup> 반면에 「신궁」은 무당 ‘왕년이’의 시점에서 어촌 사회의 경제적 모순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무당이 신과의 영적인 교류 끝에 펼치게 되는 제의 과정에서 섬사람들의 공동의 적을 징치하는 마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토속적·민중적 역량을 일깨우는 호소의 외침이자 사회적 모순에 대한 타격의 신호로 평가된다.<sup>5)</sup> 「낙월도」에서 닫혀버린 전망의 가능성이 「신궁」에 이르러서야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낙월도」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자연 재앙 속에서 어민 신앙적 관습과 제의에만 의지한 채 한을 삭히기만 할 뿐 어떠한 행위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데 모아진다. 김개영이 한의 감정을 섬사람들의 ‘삶을 지속케 하는 동인’<sup>6)</sup>으로 읽어내고는 있지만 그것 역시 「신궁」에 등장하는 무당의

3) 작가 천승세의 문학은 크게 전통·토속적 세계를 다룬 작품과 도시 변두리 하류 인생을 다룬 작품군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의 계열에 「낙월도」를 비롯해 「달무리」, 「불」, 「운주 동자상」, 「신궁」 등의 작품이 속하는데, 그 중 「낙월도」는 민중의 비극적 운명을 낙월도 여인들의 기구한 삶으로 형상화한 밀도 높은 수작으로 꼽힌다.(양윤의의 해설, 『황구의 비명』, 책세상, 2007, 357면)

4) 이보영, 「종말적인 세계의 명암-천승세론」, 『현대문학』, 1980, 11월호, 22면.

5)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비, 1994, 336면.

6) 김개영, 「천승세 소설에 나타난 섬 공간과 무속 「낙월도」와 「신궁」을 중심으로」, 『도서문화』52,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2018, 220면.

역할과 의미를 전제하기에 가능한 해석이다.

다시 말해, 「낙월도」에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 즉 현재의 시간<sup>7)</sup>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섬 ‘낙월도’는 마치 주술에 갇힌 공간처럼 보이며 섬사람들은 그곳을 열고 나가지 못한 채 극악한 삶이거나 혹은 죽음의 형태로 머무른다. 「신궁」에 열린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 생성의 순간이 있다면 「낙월도」에는 수난과 생존에의 갈망만이 반복되는 닫힌 체계<sup>8)</sup> 속 역사 이전의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낙월도」의 섬은 근대적 시간 너머에 존재하는 무시간적 신화의 공간<sup>9)</sup>이며 자연과 인간이 인위적 위계질서에 의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sup>10)</sup> 원시적 공간이다.

그렇다면 「낙월도」가 그리고 있는 반복되는 암울과 수난 속 인물들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볼 여지는 없을까. 변화나 발전이 공모되지 않는 암흑의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터전 삼아 부대끼던 이들에게 그곳은 삶을 영위하는 장소이지 않았는가.

이 글에서는 이 같은 고민 속에 「낙월도」에서 시종 어민 신앙적 관습이 인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그에 따른 제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지역의 민속학적 연구를 참고하고 어민 신앙에서 신격을 이해하는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인물의 확장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신화적이거나 퇴행적 ‘공간’으로 평가되던 섬 낙월도를 인간 현실의 ‘장소’<sup>11)</sup>로 인식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할 것이

7)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웅섭 역, 『신화, 꿈, 신비』, 숲, 2006, 30면.  
 8) 레비 스트로스, 임옥희 역, 『신화와 의미』, 이끝리, 2000, 83면.  
 9) 김개영, 앞의 글, 223면.  
 10) 양윤의, 「천승세 소설 연구-「낙월도」, 「신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264면.  
 11) 지리학자 E. 펠프의 설명에 따르면 공간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실체가 없는데 여러 하위 개념 중에서도 특히 실존과 생활공간의 내부에 있는 의미의 중심지를 장소라고 이른다.(E. 펠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63면) 이-푸투안은 장소를 ‘허기와 갈증, 휴식, 출산 같은 생물학적 욕구가 충족되는 가치의 중심지’로 설명했다.(이-푸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16면)

다. 민속학 연구에 따르면 자연 부락마다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신당(神堂)이 있고 여기에는 특정한 당신(堂神)이 좌정해 있으며 당신설화를 통해 좌정의 과정이 풀이된다.<sup>12)</sup> 특히 도서(島嶼) 지역의 경우, 험난한 바다 환경에 적응해 생계를 꾸려야 하므로 바다리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신앙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sup>13)</sup> 당제, 갯제, 풍어제 같은 공동체 단위의 의례뿐만 아니라 뱃서낭, 뱃고사, 유황제, 어장고사와 같은 개인 단위의 의례들이 폭넓게 전승되는데, 모두 바다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장치이다.<sup>14)</sup> 각종 신화 생성과 그에 따른 의례적 재현 및 전승 행위의 바탕에는 그토록 절실한 현재 삶의 애육과 회구가 놓여 있다. 민속학자들의 연구에서 현지 의례 재현이나 전승의 조사 내용을 살피면 결합과 대체, 수용과 약화(혹은 강화)를 통한 변형과 재구성의 과정이 매우 짝게 나타나는데 연구자들 또한 이를 때와 필요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으로 밝힌다. 이처럼 환경과 집단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이되는 유연성을 어민 신앙의 특성이라 한다면 「낙월도」의 서사 내 환경을 어떤 신화 생성의 예비적 단계로 보고 그 집단의 필요에 따른 특정 인물의 유사-신격화를 상상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헤서라면 「낙월도」의 신화적 혹은 원시적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하는 인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 역시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신화란 인간 행위의 모델로 사용되는 진실한 역사<sup>15)</sup>이기도 하므로 이를 통해 현재에도 유효한 인간상의 모범을 보고 현실문화 혹은 현

12) 김영일, 「한국의 당신설화와 서사의 구조」, 『한국 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 2005, 345면. 당신에는 무속영웅이나 설화적, 혹은 역사적 인물이 좌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귀동이 모(母)' 같이 일반 인간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이경엽, 「흑산도 진리당신화의 형성과 의미」, 강성복 외, 『해신과 바다의례』, 민속원, 2019, 271면, 각주 17 참고)

13) 이경엽, 「서남해의 갯제와 용왕신앙」, 강성복 외, 『해신과 바다의례』, 민속원, 2019, 288면.

14) 위의 글, 같은 면.

15) 미르치아 엘리아데, 앞의 책, 18면.

실 장소의 정체성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sup>16)</sup>

## 2. 어촌의 수난 재현 양상과 어민 신앙적 관점에서 본 인물의 변위와 의미

### 1) 불온한 해신(海神)과 대항적 여성신의 응위 필요성

「낙월도」의 주 배경인 낙월도는 섬의 생태적 특성에 의해 의식적 활동 대부분이 어민 신앙적 세계관에 포박되어 있는 곳이다. 바다라는 초자연적 존재에 의존해야 하므로 어민들의 모든 희원은 바다와 관계된 신앙 속에 반영되어 갈구된다. 서사 초반 몇 개월째 계속되는 “홍어”를 극복하고자 진행되는 ‘용바위제’나 ‘햇불제’ 모두 바다신, 곧 용왕신에게 올리는 제사로, 민속학 연구에 따르면 이 바다제사(갯제)는 도서·해양민속의 기층을 이루는 용왕신앙의 구체적 전승형태로<sup>17)</sup> 바다에 명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문화적 전통과 신앙의식을 담고 있다.

사월 초아흐레 용바위 젓날이었다. 한 해면 통틀어 열댓 번은 자질구레한 젓밥치레가 있었지만 사월 초아흐레 용바위 젓날은 섬사람들의 일년 신수치레에다 풍어제까지 곁들인 대제인 것이다. (중략) 햇불들은 아낙들이 들고 섰다. 용바위 수신은 계집불을 즐겨 나들이를 한다는 전설 때문이었다.(천승세, 「낙월도」, 『황구의 비명』, 책세상, 2007, 131-2면, 이후 인용은 면수만 표기)

수런거리는 소리가 몇자 장성택이 나직한 목소리에다 오진 가시를 박

---

16) 임재혜, 「한국신화의 주체적 인식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임재혜 외,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83면.

17) 이경엽, 「서남해의 갯제와 용왕신앙」, 앞의 책, 289면.

는다. “용바위구 지랄이구 우리 섬 서름은 이놈어 용바위 때문이지 뭘, 그래서 사내들 행패가 이러구…….” 귀덕이는 장성택의 이 말에 그만 등골이 싸해져 지레 자지러진다.(135면)

「낙월도」의 바다제사 역시 바다를 달라고 풍어를 기원하는 섬사람들만의 신심 속에서 크게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의 내심에 이르면 제사는 사뭇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듯 보인다. 인용에서 보듯 ‘용바위제’의 대상 신은 낙월섬 ‘사내들 행패’와 직결되어 이해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다. 섬 여성들의 “서름”과 원한을 일으키는 ‘용바위 수신님’의 특이성은 “지집불(계집이 든 햇불)을 즐겨 납신다”(211면)는 것인데 섬사람, 특히 섬 여성을 제물로 받아 바다의 화평을 제공한다는 전설 속의 ‘용바위 수신님’은 흉어 기간이면 더욱 공포스러운 존재가 된다. 흉어철이면 아사(餓死)를 피하고자 여자아기를 바치거나 딸의 과오를 씻고자 어미가 대신 공양제물로 나서기도 하는데, 그때를 같이해 가난한 집 처녀들은 곡기 몇 섬을 받고 세도가들에게 바쳐진다. 세도가들이 ‘용바위 수신님’과 같은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으로<sup>18)</sup> 서사 내 계급 질서에 따르면 섬 여성들에게 ‘용바위 수신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곧 세도가들이다. ‘땀막 양서방’과 ‘석보 영감’, ‘최부자’로 그려지는 세도가들이 섬 안의 대부분의 논밭과 함께 “섬의 명줄을 쥐 중선”(146면)을 가졌기에 그들의 조력 없이는 낙월섬을 빠져나갈 수도, 낙월섬에서 살아남기도 힘들다. 그래서 어지간히 온당치 못한 처사에도 “일절 불만 토로 말구 찬성해서나 복종”(210면)하라는 말을 누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다. ‘장성택’이 보기에 ‘용바위제’란 흉어의 허기를 빌미 삼아 섬사람들을 휘두르고 단속하려는 세도가들의 권위를 확인하는 제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장성택’을 포함한 섬사람들 대부분이 ‘용바위 수신님’에게 바치는 관습적 신앙심에 포박된 나머지 실

18) 김개영, 앞의 글, 220면.

제 자신들을 휘두르는 허상으로서의 용바위수신과 그 불온함에 대부분 저항하지 않는다. ‘용바위 수신님’이 낙월섬 앞바다에 흥어기를 가져오면 그것은 섬사람들의 부정 탄 행위 때문이고 풍어가 들면 용바위수신(세도가들)이 제주(祭主)로 나선 제례 덕분으로 이해된다. 기나긴 흥어철의 “단단한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용바위 젓날 월순이가 잘못” 들어서이고 (181면, 월순어미의 말) 반면 무당 ‘청백이’의 사설과 함께 “젓물”로 나서 뛰어들어 ‘팔레어미’는 “팔레어미가 그여 물목을 트는 모양이구먼 그라……”(273면, 장성택의 말)라고 추앙되는 것인데, 그러한 해석도 수난받는 자들의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 신앙심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맹목적 황포와 믿음의 기반은 서사 후반에 실제 그 허상의 일원인 최부자가 읊어대는 섬의 생성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죽도성왕이 쌀밥을 묵으러 칠산엘 나던 판에 삼출목에 당도혀서는 진퇴루다 양난”(264면)인 상황에서 삼출목 신장과 싸우다 삼백일 만에 패전하고 항복 문서를 쓸 자리를 찾던 때에 ‘용바위 수신님’의 제안으로 “지집”을 바치고 머리를 잘린다. 잘린 머리가 안착한 자리에 칠성님이 달을 내려주었고 그것이 곧 “낙월섬의 잉태 역사”(265면)가 된다. 이 신화에 따르면 이미 낙월도 자체가 ‘용바위 수신님’과 삼출목 신장에게 패배한 죽도성왕의 원한으로부터 발원한 곳이다. 여기서 스스로 재앙의 원천이 된 죽도성왕은 자신의 한(恨)을 위무해줄 신당(神堂)과 인간을 찾아 나선 듯하며 위무와 경배의 대상이기보다 ‘한(恨)-살(煞)’의 관계로 묶인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다.<sup>19)</sup> 그의 원한을 끌어안은 낙월섬 사람들, 특히 처녀들은 ‘용바위 수신님’과 삼출목 신장의 힘에 억압되어 영영 재물로나 헌식되어야 할 판이다. 최부자가 ‘낙월섬의 잉태 역사’ 설명에 이어 주절대는 내용<sup>20)</sup>을 살펴보면 마

19) 김영일, 앞의 글, 363면.

20) “이것이 낙월섬의 잉태 역사여! 낙월섬에다 원을 걸어봐여! 마음속에다 서리를 내려봐여! 용바위 수신님이 지키구 삼출목 신장님이 창검도를 든단 말여. 이렇게! 아, 이렇게에—.”(265면)



음속에 두려움과 원한을 품고 그것을 낙월섬에서의 생존 동력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임히는데 섬의 생성 신화에 이미 낙월도를 지배하는 죽도성왕의 패배의 정서와 함께 삼출목 신장의 포악성과 ‘용바위 수신님’의 호색한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그 같은 신화가 세도가들의 맹목적 믿음과 횡포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그러나 신의(神意)란 결국 사람들의 해석과 기원의 다른 표현이기에<sup>22)</sup> “지집불”의 의미에 대해 주로 제주(祭主)가 되는 세도가들이 자신들의 비위에 맞춰 변형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서사에서는 ‘용바위제’의 무용함을 증명하듯 ‘용바위 수신님’에 대한 신심은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하고 ‘월순이’와 ‘팔레’의 사례에서 보듯 단지 탈주 시도의 계기로 쓰일 뿐이다. 제물로 나선 ‘팔레어미’의 경우도 딸의 과오를 갚고자 스스로 나섰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탈주에 가깝다.<sup>23)</sup>

이경엽에 따르면 민간신앙은 민중의 삶 속에서 생활의 표상이자 계기로서 기능하기에 제의와 신화는 제의 담당 집단의 생활 경험과 관련되어 생성·변이의 과정을 거쳐 전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sup>24)</sup> 그렇다면 ‘어민의 신앙·희원에 따른 신과 신화의 상징’을 내적 논리로 삼아 ‘용바위 수신님’의 허상인 세도가들, 그들 은유로서의 용바위수신의 횡포에 맞서 낙월섬 사람들의 평안을 구할 유사·신격의 자리에 주인공 ‘귀덕’을 상징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sup>25)</sup> 앞선 탈주의 직접적 상대

21) 이는 신화를 세도가들의 불온한 행태에 대한 책임 회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22) 이경엽, 「흑산도 진리당신화의 형성과 의미」, 앞의 책, 275면.

23) ‘팔레가 종선꾼 ‘덕주’와 ‘햇불제’를 핑계 삼아 탈출하기 직전에 나무터에서 ‘청자도 것’을 둘로 쳐 죽이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팔레어미’가 알고는 ‘팔레 내 죄, 내 팔짜, 제 예비 서름다 떠맡구서는 내가 낙월섬 치성이나 드러야’(234면) 한다며 스스로 “지집 췌물”(235면)이 되어 바다로 나간다.

24) 이경엽, 위의 글, 267면.

25) 무속신앙에서는 무당이 본래 신과 인간의 소통을 담당하는데, 「낙월도」의 무당 ‘청백이’는 서사의 초점에서 비껴가 있어서 곳을 행하는 장면 서술이 매우 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신궁」

는 세도가들이지만 이는 동시에 ‘용바위 수신님’의 신의(神意)라 할 낙월 섬에서의 탈주를 뜻하기도 한다. 신과 세도가들과 섬의 운명을 한데 엮어 이해하는 기이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 그것은 곧 믿음에 대한 의문시를 넘어 믿음에의 거부이자 저항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남은 이들의 희원을 새로운 대항적 여성신의 존재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세도가들이 은유로서의 신이듯 여기서 새로운 신격 또한 같은 원리로 특히 ‘귀덕’이 선택되는 이유는, 세도가들이 스스로를 신격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유가 섬사람들과 자신들의, 내적으로는 각기 다른 맹목적 믿음에 기반했듯이 ‘귀덕’ 또한 ‘용바위 수신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가졌다는 데 있다. 부서 떼를 쫓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 제사 곡물을 얻는 대가로 몸을 팔았다가 임신한 어머니의 자진, 서로 좋아하지만 끝내 붙잡지 못하는 ‘종천이’의 애끓는 마음을 동력삼아 ‘귀덕’은 ‘최부자’의 말처럼 “낙월섬에다 원을 걸”고 “마음속에다 서리를 내려”(265면) 낙월 섬에서의 순응적 삶을 보전한다. ‘월순이’나 ‘팔레’, ‘상남이’가 섬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탈주<sup>27)</sup> 시도를 통해 용바위수신(세도가들)의 화를 돋우고

---

과 비교해 서사의 분위기가 정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낙월도」에서 무당의 존재를 개의치 않을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무당을 거치지 않고도 신에게 직접 축수가 가능한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섬사람들의 필요에 따른 신적 개념의 상정도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 26) 신에 대한 의문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절망, 신앙적 변심은 섬 주민들에 의해 여러 번 표출된 바 있다. “**낙월섬두 인저 윤이 다 간 풀**이지? 그놈의 간것들이 하필이면 용강만 싹 돌림질허 군 빠출 건 뒤람!”(161면, 낙월섬 주민의 말, 강조는 필자), “**재양도 단단한 재양이지 워디 이 렬 수가 있담!** (중략)”(181면, 월순 어미의 말, 강조는 필자), “**히긴 그라…… 용바위 수신두 처 너 원기엔 신명이 주나 보지.**”(181면, 장성택의 말), ‘용바위 수신이 다른 물목을 팔라 자리를 남겼는지 흥어는 억척스레 기승을 부렸다.’(207면 지문), “**낙월섬에서는 안 되어! 절대적으로 안 되어!**”(장성택의 말, 254면)
- 27) ‘월순이’와 ‘팔레’, ‘상남이’ 모두 ‘뚝막 양서방’의 시앗이었다. 이때 ‘탈주’의 의미는 엘리아데가 신화적 행동의 주된 기능으로 이야기한 ‘속의 세계를 떠나 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미르치아 엘리아데, 앞의 책, 31면)과는 반대로 ‘성의 세계를 떠나 속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결국 ‘용바위 수신님’의 화(흥어)를 지속하게 했던 데 반해 ‘귀덕’은 시종 ‘용바위 수신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섬의 질서를 흔들리지 않는다. 결말에서도 용바위수신, 곧 최부자의 시앗으로 들어앉음으로써 ‘용바위 수신님’의 신의(神意)인 낙월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용바위수신에게 낙월섬이 신적인 세도를 부릴 수 있는 수탈의 대상 공간이라면 귀덕에게 낙월섬은 ‘용바위 수신님’의 현현의 공간이며 동시에 자기 삶의 장소이다. ‘귀덕’은 신적인 공간과 자기 삶의 장소를 일치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신성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귀덕’의 무저항성이란 결국 그녀 신앙의 실천적 행위로 볼 수 있겠는데 이 글에서는 그것을 오늘의 섬사람들에게도 존속하는 내력(內力)으로 의미화하려 한다.

## 2) 원혼들의 환도(還島)와 성스러운 인격의 공명(共鳴)

서사에서는 내내 지속되는 흥어와 세도가들의 횡포로 인해 낙월섬을 탈출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지만 모두 실패하고 대부분 주검으로 돌아온다. 그 중 ‘상님이’와 ‘용배’의 서사는 탈주 불가를 전제하는 낙월섬의 가학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세도가들은 굶주린 낙월 처녀를 시앗으로 들어앉히고 아이를 낳게되면 “젓줄”을 바꿔본다는 핑계로 “청자도 새덕”을 불러들인다. “청자도 것들”은 “술집 작부질을 하다 온 것들”로 그들이 “나루에 떨어지면서부터 섬 아낙들은 장독 깬 강아지처럼 슬금슬금 눈치나 보며 갖은 구박을 맞아야”(169면) 한다. ‘상님이’ 역시 그 같은 기이한 관습에 묶여 “청자도 것”에게 매질을 당한 뒤 머슴 ‘용배’와 함께 “길쭉한 널빤지”에 몸을 묶어 탈출을 시도하지만 ‘삼출목’의 거센 물살을 넘어 나가지 못해 끝내 환도(還島)하고 만다. 용바위 갯제 때 죽은 ‘월순’이나 ‘덕주’와 함께 탈출했다가 실성한 채 혼자 잡혀 돌아온 ‘팔레’도 같은 경우다. ‘귀덕’의 아버지 ‘문가’를 포함해 ‘용배’나 ‘덕주’ 등 남성들이 어떤 식으로

든 돌아오지 않는 반면, ‘상님’이나 ‘월순’이, ‘팔레’가 환도하는 것은 낙월섬 여성 중심의 원한을 축적하고 용바위수신(세도가들)에 대항하는 기억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이때 환도한 이들을 동정하고 죽은 혼령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려는 공동체의 민심을 대변하는 이가 곧, 무당 ‘청백’이다.<sup>28)</sup> 민간신앙에서 ‘연민’과 ‘공포’야말로 ‘한(恨)’과 ‘살(煞)’에 대응하는 신앙의 원천으로 ‘청백’은 죽은 이들의 한(恨)을 동정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재앙(살(煞))으로 바뀔 것을 두려워해 굿을 행한다.<sup>29)</sup>

그런데 ‘동정’과 ‘연민’을 엄격히 구분하는 감정이론에 따르면, ‘청백’의 굿과 그 마음은 ‘동정’에 그칠 뿐 ‘연민’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이다. 고통을 당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쪽 모두 ‘동정’보다 더 강렬한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연민’이며 ‘동정’은 그 순간에 그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정이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숙련된 배우의 정신적 준비와 비슷한 것으로 ‘감정이입’을 정의하는 누스바움에 따르면 그것은 고통 받는 사람의 상황을 참여적으로 행위화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항상 나는 고통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sup>30)</sup> ‘청백’ 역시 낙월섬 여인이지만 ‘진도댁’, ‘추자댁’과 함께 “제 영감 짝 맞춰 사는 아낙”으로 ‘장성댁’이나 ‘귀덕’을 비롯한 섬여성들과는 다른 운명을 사는 여성이다. 동시에 ‘용바위 젓날’에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호귀춤 취대며 … 신이 들러 너 울대”(138면)거나 주검 앞에서 “사관천 자락”을 필력이며 “혼귀춤”(228면)을 추고 생전의 국면들을 요약해 “가락가락”(281면) 사설을 푸는 무당이다. 다시 말해 굿판이라는 무대에 무복(巫服)을 갖춰 입고 올라 신에게 인간의 바람을 전달하거나 혼령들을 위로하고 순간적인 감정이입을 통해

28) 당신화의 서사에도 비극적으로 죽은 원혼이 발생했을 때 한을 풀어주어야 해를 입지 않게 되므로 해원을 위해 신으로 모시는 이야기가 있다.(이경엽, 『흑산도 진리당신화의 형성과 의미』, 앞의 책, 275면 참조)

29) 김영일, 앞의 책, 364면.

30)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2 연민』, 새물결, 2015, 554-97면 참조.

해원(解冤)을 시도하는 것인데, 그의 감정은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사라진다. 이에 반해 ‘귀덕’이 저들에 대해 내보이는 감정은 모성에 가까운 ‘연민’으로 이름할 수 있겠다.

① 속에선 갖가지 사념들이 차일질을 해대는 중에서도 귀덕이는 우선 용배가 한없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중략) “용바위 수신님! 곱자리 칠성님! 빌어유, 이렇게 비네유! 용배한테 장사힘을 주시구 상님 이한테는 담뱃담뱃 운복을 내려주세요! 빌어유, 빌어유!” 귀덕이는 비칠 걸음으로 폭석폭석 발목까지 빠지는 모래톱을 걸으면서 연신 중얼댔다. (156면)

② 귀덕이는 가만히 쪼그려 앉은 채 연신 제 손등으로 떨어져 내리는 눈물을 손바닥이 아프도록 쓸어내곤 또 그러곤 하면서 이제 강년이처럼 서러운 울음이 목젢에 찰싹 걸린다. 강년이라며 저렇게 되면 삼 안 싹 쓸어 처녀라곤 저까지 합쳐 몇 명이나 남을까 싶은 것이 이토록 서러울 수가 없었다. (173-4면)

③ 뱃머리께로 다 걸어온 팔레가 하냥 눈창을 뒤집어 까며 오뚝 섰다. 덕주·월순이·상님이·옴팍네가 뱃머리를 싸고 둥그렇게 줄을 서더니 별안간 하늘이 찢기게 까르르댔다. (226면)

‘뚝딱 양서방’의 셋째 시앗으로 갔던 ‘상님’이 “제 어린 것”에게 “젓줄을 짜넣는다” 들켜서 ‘청자도 새댁’에게 “머리채를 땀뚝질하듯” 돌려진 뒤 ‘귀덕’에게만 ‘용배’와 함께 섬을 탈출하겠다는 작심을 전할 때, ‘귀덕’은 ‘상님’의 고통과 욕망을 이해하고 ‘용바위 수신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끌어다 ‘운복’을 빌어주며(인용 ①) 이후 “용배와 상님이 함께 바다를 건너갔으리라고 믿는다”(157면)다. 그리고 그녀가 끝내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는 “더럽고 흉하지도 않아 널빤지째로 들쳐업고는 청백이 집으로 출창 내닫던

중천”(158면)이의 마음 씩씩이를 헤아린다. 무당 ‘칭백이’의 굿이 죽은 이의 혼령만을 위무하는 반면 ‘귀덕’의 연민은 그 인물 생전과 사후의 시시각각에까지 대응하는 생동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용 ②는 겨우 굿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세도가의 시앗으로 들어간 ‘팔레’를 부러워하던 ‘강년’이가 ‘석보 영감’에게 스스로 몸을 바치는 장면을 우연히 목도한 ‘귀덕’이 숨어서 우는 장면으로 ‘귀덕’은 여기서 ‘강년’을 타하기보다 자신을 포함한 섬사람들의 생존에의 갈망과 그에 따른 오욕의 처세를 슬퍼한다. 그리고 인용 ③에서와 같이 원혼으로 돌아온(팔레는 이후 실성해서 환도) 마을 사람들의 흥취한 모습을 꿈에서 보고, 마치 가임의례<sup>31)</sup>와 같은 고통을 같이 느끼기도 한다. 이어 꿈에 나타난 이들이 모두 달려들어 ‘귀덕’의 목을 죄며 “당복산에다 물어주어! 지레 돼지지 말구 지레 돼지지 말구!”(226면) 라고 외치는 부분은 ‘귀덕’이 스스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연민과 함께 낙월섬에서 살아남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장면으로 읽힌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것으로 믿는 불행……에 대해 느끼는 고통’의 의미를 갖는 연민이란 고통이 심각함을 알고 해당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과 상대의 고통의 정도를 흡사하게 느끼는 마음을 필요조건으로 갖는 정념이다.<sup>32)</sup> 특히 인간적 삶을 누려야 할 누군가에게 부당하게도 자신의 잘잘못을 넘어 심각하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그가 나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미 유사-윤리적 성취를 포함하고 있는 정념이다.<sup>33)</sup>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 ‘귀덕’에게 낙월섬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비인간적 삶은 단순한 감정어입에 그치지 않고 연민에 이르는 기본 조건이 된다. 그녀는 언제나

31) 미르치아 엘리아데, 앞의 책, 102면.

32) 마사 누스바움, 위의 책, 561-87면.

33) 같은 책, 613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시앗으로서의 삶에 대해 그것이 섬처녀들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낙월섬의 산물이자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다. ‘귀덕’을 비롯해 섬 여성들의 성적(性的) 관념에서 섬 처녀들의 동정(童貞)이 몇 섬의 곡기와 교환되는 일은 옳고 그름의 범위를 벗어난 생존의 방식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기아의 상황에 함께 처한 공동체로서 연민의 순간에 작동하는 그 믿음에 근거함으로써 생성되는 윤리적 판단인 것이며 다른 이들보다도 ‘귀덕’은 내밀한 논리로써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귀덕’의 유사-윤리적 성취로서의 연민은 바로 섬 안의 질서가 갖는 모순에 대한 직시까지를 포함하는 신성적 정념이다.<sup>34)</sup> 이처럼 원혼의 해원(解冤)을 공명(共鳴)으로써 수행하는 성정을 통해 ‘귀덕’이 대개 남성신에 비해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모성의 이미지로 상상되는 여성신에 가까운 신성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35)</sup>

### 3) 수난자-대리의 삶을 통한 해원과 유사-신격에의 응위 의미

결말에서 ‘귀덕’은 어머니 ‘장성택’이 죽고 난 뒤 어미의 바람대로 ‘최부자’의 시앗으로 들어간다. ‘장성택’은 남편의 제삿날 제물을 마련하기 위

34) 백낙청은 「낙월도」가 “그 나뭇의 역사와 계층구조와 지정학적 조건을 떠나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복잡하고 특수한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자연조건에 묘하게 편승한 이 섬 특유의 전통·인습·사회구조 등에 말미암아 주민들의 궁핍과 비참이 생성됨을 “밀도질게 드러낸 데에 소설 「낙월도」와 혼한 ‘로컬물’들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백낙청, 「민족문학의 현대론」, 『민족문화와 세계문학2』, 창비출판, 1985, 46-47면) 본 연구에서는 그 같은 모순에 대한 인식이 ‘귀덕’의 시선에서 처리된다고 보았다.

35) 실제 낙월도가 속한 칠산어장권의 해신 신앙과 특징을 조사하고 있는 민속학자 이영금의 연구에 따르면 칠산어장권에서는 개양할미와 딸들이 신격에 좌정해 선원들의 안전과 풍어를 도모하는데, 그들은 조기잡이 신이기보다는 어민의 안전을 돌보는 신으로 부각되어 있다. 동해안 일대나 흑산도 진리당에 좌정한 원혼신은 해원(解冤)을 전제로 풍어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건부적인 이미지가 강한 반면, 칠산어장권의 여신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성적 이미지가 강하다.(이영금, 「칠산어장권의 해신 신앙과 특징」, 강성복 외, 『해신과 바다의례』, 민속원, 2019, 257면 참고)

해 홀아비 ‘용문’을 찾아갔다가 곡기를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기에 이르는데 끝내 사실을 감추고 딸 ‘귀덕’의 생존을 도모하는 한 방편으로 ‘최부자’와 거래하고 자신은 잣물을 마시고 죽는다.

① 귀덕이는 송알 눈물방울을 떨구면서 장성택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혀를 깨문다. 만약 모진 병을 얻어 명줄이라도 끊는 날이면 저도 따라 죽으리라 주먹을 쥐어본다.(270면)

② “콧배기가 높아서 장성택 비위에 맞는 사내는 낙월섬에 없잖구. 고 것이 걸레면 같은 갈포 치마루다 사추리를 가렸어두 속심이 위찌나 드세고 청청한지 워편 사내가 고걸 차남. 어립두 없잖구.”(272면)

③ 진도택이 이불을 획 긋히면서, “갈것을 입혀야 허잖어. 이구 이구우---갈것 좀 만들어야지 어서.” 하자, 귀덕이는 제 가슴으로 열른 장성택의 배통이를 싸뒹으며 소리쳤다. “놔두세유! 시신에다 손대지들 말어유! 내가 다 헐 거유! ..... 업니 업니! 이 방에서 한 발두 안 뜰 거유 난.....내가 워딜 가유우--- 최 부자한테 뭇 한다구 가유우--- 업니! 워찌 이류유! 눈 좀 떠봐유, 눈 좀 떠봐유우---.”(281면)

인용 ①은 아버지가 죽은 뒤 남겨진 ‘장성택’과 ‘귀덕’이 모녀가 낙월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견뎌낸 모진 시간과 함께 둘 사이의 애뜻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sup>36)</sup> 이미 종선꾼인 ‘종천’에게 마음을 준 뒤임에도 ‘귀덕’은 어머니가 죽으면 따라 죽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용 ②는 ‘장성택’이 남편이 죽은 뒤 낙월섬의 생리에 맞지 않게 수절하는 상황에 대해 마을 여자들이 치하하는 장면이다. 것처럼 “청청한” ‘장성택’이었으므로 ‘귀

36) 모녀간의 강한 감정적 유대는 여성 무속신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강진옥, 「무속신화와 일상의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종교성」, 『여성신학논집』1, 이화여대여성신학연구소, 1995, 187면.)



덕'이 역시 임신 사실을 감쪽같이 몰랐다가 '장성택'이 죽기 얼마 전 함께 자던 중에 우연히 배를 만져보고 알게 되는데, 인용 ③은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죽은 '장성택'의 배를 감싸는 장면이다. 어머니 '장성택'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지 못한 이부동생의 목숨까지를 포함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귀덕'에게는 더욱 깊은 설움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설움을 환도했던 원혼들의 원한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내림된 원한, 혹은 전이된 원한으로 이를 수 있겠는데, '월순이나 '상님이', '옴팍네', '용배', '덕주(잡히려던 찰나 도망간 것으로 추측됨)를 비롯해 스스로 공양제물이 되어 희생한 '팔레어뎀'의 경우도 억울한 죽음으로 생성된 원한 많은 혼령이지만 '귀덕'과 달리 순전히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개인적 원한과 희원이라는 점에서 '귀덕'의 이타적 원한과는 차별되며 '귀덕'의 그것은 앞서 살핀 공명(共鳴)의 힘으로 그들의 원한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귀덕'은 스스로의 다짐과는 다르게 어머니를 따라 죽지 않는다. '귀덕'에게는 자신의 무탈과 안위를 위해 행해진 어머니의 죽음과 교환된 삶을 이어 사는 것이야말로 어머니의 원한에 대한 해원의 방식이 된다.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낙월섬 여성들의 원한을 기억하고 해원할 책임감마저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귀덕'으로서는 "낙월섬에다 원을 걸"고 "마음속에다 서리를 내려"(265면) 살아남는 일이 마지막 수행의 과정이기도 하다.

'귀덕'이 시앗으로서의 신분을 수용하는 데서도 이와 관련해 유사·신격·옹위의 가능성과 의미를 엿볼 수 있다.<sup>37)</sup> 서사에서 내내 되풀이되던 용왕·신과 제의·제물의 관계처럼 세도가의 계집질과 시앗·탈출·죽음은 마치 낙월섬 삶의 질서인 것마냥 반복되고 시앗으로 들어앉은 이상, 서사에서 볼 수는 없지만 향후 '귀덕'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37) 처첩의 관계 모티브는 이혼과 재혼 모티브와 함께 하나의 서사물로 여러 신위(神位)와 당신(堂神)의 기원을 동시에 풀이하려는 당신 좌정담(제주의 당신본풀이)에서 많이 쓰인다.(김영일, 앞의 글, 357면)

수 있다. “동네 미술 한 번 제대로 못 들고 줄창 토방 안에만 백혀서는 옆 구리가 가래질을 하도록 일만 해대”거나 세도가의 “잠자리를 받다가 술기가 거나해서 쫓아온 청자도 것에 까막섬 등땃불이 꺼질 때까지 오지게 매질을 받”(217면)을 것이다. 그런데 ‘귀덕’에게도 마음만 먹는다면 시앗으로 들어가지 않고 섬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미 통정한 사이인 ‘종천’은 종선꾼으로 노질을 잘하고 이후 더 큰 배인 중선을 몰게 되기에 이른다. ‘덕주’와 ‘팔레’처럼 함께 배를 몰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천’은 “절대 낙월섬을” 떠나지 않고 “기어코 억척같이 일해서는 최 부지구 석보구 양 서방이구 다 딛구 설 터! 그여코 배를 장만할 터!”(230면)라며 성공하기 힘든 야망을 키우고 ‘귀덕’에게 “살려둘러! 년 꼭 낙월섬에다 살려둘러!”(257면)라고 말해 ‘귀덕’을 낙심하게 할 뿐이다. 어머니 ‘장성택’과 마찬가지로 ‘종천’이 역시 ‘귀덕’에게는 낙월섬을 떠나지 못할 이유로 덧붙이고 결국 ‘귀덕’은 스스로 ‘최부자’를 따라 나선다. 그런데 여기서 ‘귀덕’의 행위를 체념이나 타의에 의한 수동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그것을 질서외의 뛰어듬으로 보고 섬 여성들의 수난의 삶을 고스란히 되풀이 사는 것으로 읽는다면 이는 ‘귀덕’의 신성성과 연계해 또 다른 신격 좌정의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같은 조건의 공간을 사는 여성들에게 ‘귀덕’은 자연과 신의 뜻에 따른 수난과 순응의 삶을 수행으로 일관한 이로서 공동체의 본보기가 될 여지를 지낸다. 여러 무속신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성신들의 행위적 특성에 대해 여성 신도들이 부여하는 의미는 각별하다.<sup>38)</sup> 민속학자 강진옥에 따르면 무속의례에서 반복적으로 구송되면서 여성 신격들의 삶을

38) 여성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바리공주〉, 〈도량선비와 청정각사〉, 〈세경본풀이〉에서는 여성들이 죽음이나 농경과 관련된 신격으로 좌정하고 〈제석본풀이〉나 〈이공본풀이〉에서 여성은 새로운 신격 탄생의 기반을 제공하며, 〈차사본풀이〉나 〈경기도 성주 풀이〉에서도 여성들은 주인공을 도와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이용범, 『시베리아신화와 건주여본 한국 무속신화의 정체성』, 임재해 외,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544면)

학습한 여성들은 여성신들의 삶을 이상화하고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자기 삶을 확인한다.<sup>39)</sup> 여성 신격들이 처해있던 고통스러운 상황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감내해야만 하는 억압 속에 있는 여성 신도들이 여성 신격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는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다.<sup>40)</sup> 기본적으로 신화는 인간 활동의 모범적 모델로 기능하기에 인간의 모든 재연적 행위에 신성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과 노동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41)</sup> ‘귀덕’의 유사신격에의 응위 의미도 이처럼 그녀의 내력담(來歷談)에 대한 인간적 향유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공명의 능력과 함께 수난의 삶을 고스란히 되풀이 할 수 있는 견딤의 능력이야말로 그녀의 신성성에 해당한다. 낙월섬 사람들의 고통의 근원에 바다라는 자연 환경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섬사람들에게 다시 체험되고 있을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섬 여성들이 똑같이 겪는 섬살이의 내력(來歷)이 될 것이다. 그러한 내력 속에서 현재 삶을 견딜 수 있는 서로의 내력(耐力)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을 신이한 능력에 상응하는 자신만의 내재된 힘(內力)으로 신성화하기에 이르기도 할 것이다.<sup>42)</sup> 이 글에서는 이 같은 견딤의 내력을 「낙월도」의 신화적 공간을 열고 당대의 민중을 넘어 현재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독해 방식의 최종 의미로 삼는다.

39) 강진욱, 앞의 글, 153면. 강진욱은 조선조의 무속 탄압과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과 맞물려 두 방향 간의 친연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으로써 무속의 정신이 주로 여성들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설명한다.

40) 위의 글, 186면.

41)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2001, 88면.

42) 「신궁」을 함께 거론할 경우 그들의 견딤의 내력은 단지 억압적 삶을 지속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전복하는 데까지 이른다. 「신궁」에서 그러한 내력은 신의 영매를 통해 표출되는 데, 선행 연구들의 논의 범위가 대부분 「신궁」에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3. 결론

도서해안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신화적 서사가 필요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환경적 억압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로 작동하며 앞으로도 통제되지 않을 오랜 미래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사는 특정 시대의 사실(史實)이 아니라 언제나 반복해서 재현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로서의 신화이다.<sup>43)</sup> 이 글에서는 천승세의 「낙월도」를 그 같은 신화적 서사의 예비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어민의 수난 재현의 형상을 살피고 어민 신앙에서 신격을 이해하는 방식을 접맥 차용해 인물의 확장적 의미를 논의했다.

먼저, 바다와 어민 신앙적 세계관에 포박된 낙월섬의 생태에 의존·기생하는 해신의 이중적 현현과 불온성을 논의하고 어민 신앙의 변화·생성의 원리를 차용해 그 불온함에 대항할 유사-신격의 자리에 주인공 ‘귀덕’을 상정했다. ‘용바위 수신님’과 낙월섬에 대한 그녀의 무저항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그녀 신앙의 실천적 행위로 보고 그러한 믿음을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신심으로 보았다. 이어서 ‘귀덕’이 유사-신격으로 추앙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녀의 연민을 신성한 정념으로 설명했다. 무당 ‘칭백이’가 굿판이라는 무대에서 순간적인 감정이입으로 원혼들의 해원을 시도하는 데 반해 ‘귀덕’은 그 인간의 생전과 사후를 아울러 연민하며 또한 섬처녀들을 비롯한 섬사람들의 무의지적 처세를 비난하지 않고 기아의 상황에 함께 처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섬 안의 모순적 질서에 의한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윤리적 성취로 판단되는 신성적 정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결말 부분에서 ‘귀덕’이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낙월섬에서 자기 삶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 그것 자체로

43) 나경수, 『한국의 신화 연구』, 교문사, 1993, 20면.

어머니의 원한에 대한 해원의 방식이 된다고 보고 그 같은 수난자-대리의 삶에 스스로 뛰어들이 또 다른 신성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논의했다.

이로써 ‘낙월도’(소설 「낙월도」이자 섬 낙월도)에 간힘으로써 생성되는 무저항성을 거기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공동체 문화의 원형으로 보고 ‘견딤의 내력(來歷, 耐力, 內力)’을 현재에도 가능한 섬사람들의 정체성으로 파악했다. 이는 백낙청이 말하는 저항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그는 앞에서 본 기존의 연구 견해들과 다르게 당시 평론에서 『낙월도』를 1970년대 민중문학론의 자장 안에서 민중적 저항의 한 형상으로 보고 “현대세계와 토속세계에 아울러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토속적 언어가 갖는 지적 감동력의 절절한 활용을 통해 다른 차원의 현재성을 획득하고 있다.”<sup>44)</sup>고 고평한 바 있다. 견딤의 내력을 그가 말한 ‘다른 차원의 현재성’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본고의 그의 견해를 잇는 후속 연구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4) 백낙청, 「토속세계와 근대적 작가의식」, 앞의 책, 287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천승세, 「낙월도」, 『황구의 비명』, 책세상, 2007.

2. 단행본

강성복 외, 『해신과 바다의례』, 민속원, 2019.

김영일, 『한국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사, 2005.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나경수, 『광주·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998.

\_\_\_\_\_, 『한국의 신화 연구』, 교문사, 1993.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2』, 창비, 1985.

\_\_\_\_\_,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창비, 2011.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비, 1994.

임재해 외,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6.

전경수, 『한국의 기층문화』, 한길사, 1987.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이·푸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2 연민』, 새물결, 2015.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응섭 역, 『신화, 꿈, 신비』, 숲, 2006.

\_\_\_\_\_,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2001.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임옥희 역, 『신화와 의미』, 이끌리오, 2000.

3. 논문

강진옥, 「무속신화와 일상의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종교성」, 『여성신학논집』1, 이화여대여성신학연구소, 1995, 149-200면.

김개영, 「천승세 소설에 나타난 섬 공간과 무속 「낙월도」와 「신궁」을 중심으로」, 『도서문화』52,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2018, 211-235면.

양윤의, 「천승세 소설 연구 「낙월도」, 「신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257-271면.

이경엽, 「혹산도 진리당신화의 형성과 의미」, 강성복 외, 『해신과 바다의례』, 민속원, 2019, 260-285면.

- \_\_\_\_\_, 「서남해의 갯제와 용왕신앙」, 강성복 외, 『해신과 바다의례』, 민속원, 2019, 288-324면.
- \_\_\_\_\_, 「바다, 삶, 무속」, 『한국무속학』26, 한국무속학회, 2013, 189-225면.
- 이보영, 「종말적인 세계의 명암-천승세론」, 『현대문학』, 1980, 11월호, 21-35면.
- 이봉범, 「농민문제에 대한 문학적 주체성의 회복」,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51-180면.
- 이영금, 「칠산어장권의 해신 신앙과 특징」, 강성복 외, 『해신과 바다의례』, 민속원, 2019, 222-259면.
- 이용범, 「시베리아신화와 건주어본 한국 무속신화의 정체성」, 임재해 외,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529-557면.
- 임재해, 「한국신화의 주체적 인식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임재해 외,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17-96면.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Island Culture, Character Displacement,  
and Its Meaning from the Fishermen's Belief  
—Focusing on Cheon Seungse's Novel *Nakwoldo*

Ma, Hye-Jeong

The novel *Nakwoldo* (1973) by Cheon Seungse describes the extreme poverty of islanders arising from the natural environment and old fishermen's beliefs and customs.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the characters' lack of action and has been evaluated as a space of atemporal myth and primitiveness. Nevertheles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pansive meaning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by referring to folklore research on the nearby a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divinity in fishermen's beliefs—to perceive and accept *Nakwoldo* (Nakwol Island), the background of this novel, as a real place that people inhabit. When the flexibility demanded by circumstances and groups is regarded as a feature of fishermen's beliefs, the narrative environment may be seen as a preliminary stage for the creation of myth and the imagination of pseudo-deifications of specific characters as the group demands. In this study, Gwideok with her faith in non-resistance is seen as the subject of pseudo-deification, and she is considered as serving as a religious model for the women on the island who suffer from poor fishing seasons and the tyranny of the powerful. Moreover, this study argues that her sympathy for the women on the island originates from communal



ethics different from the shaman's exorcism, and embraces the contradictions in the public order of the island, which are identified as "Gwideok's divinity." Regarding the conclusion that Gwideok became a concubine of a powerful man, this study interprets it as symbolizing her involvement with the social order and her representation of the ordeal of other women on the island, and connects it with her divinity to establish another facet of a divine person. The power of sympathy and the capability to endure repeated ordeals reveal not only the patience the women need in order to tolerate their repeated hardships from living on the island in the present day but also their mental strength, which is the ultimate significance of the new way of reading that this study identifies, one that can open the mythical space of *Nakwoldo* and communicate with people of the present time over those of the past.

Key words: Cheon Seung-se, Nakwoldo, island culture, literary representation, fishermen's beliefs, God, myth, divinity, compassion, goddess, non-resistance, endurance

투 고 일: 2022년 8월 15일

심 사 일: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2년 9월 22일